



[산업] SK이노베이션 2050년까지 탄소 1억톤 감축 08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72.05 (+21.12)	코스닥	807.04 (+10.02)
금리 (미국 3년)	3.685 (+0.043)	환율 (원-달러)	1337.60 (-9.10) (8.31)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산업지표로 확인된 경기 둔화 경고음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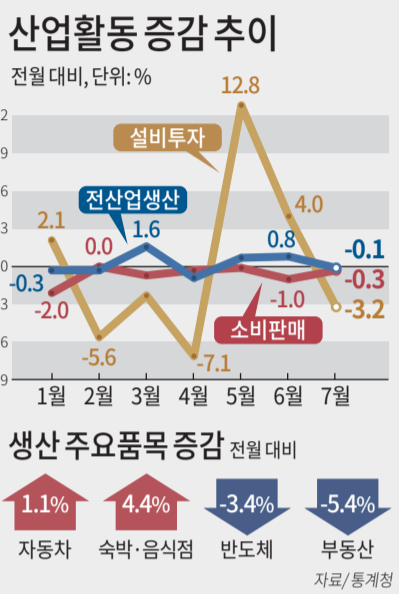
높아지는 국내 경기 불확실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
대외적 요소 실물 경제 부정적
소비, 최초 5개월 연속 떨어져

7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지
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개 지
표가 동시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
소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
동동향'에 지난 달 전산업생산(농림어
업 제외)은 광공업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판
매가 줄며 0.3%,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와 기계류 투자가 줄며 3.2% 각각 감소
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3
개월 만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로 전환했고,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내지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
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플래시메모



리, D램 등 반도체(-3.4%), 기계장비
(-3.4%) 등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자동차는 1.1%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도 1.5% 줄었다. 생산
능력 대비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2%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비
는 지난 3월(-0.7%)부터 감소세가 이
어졌는데 5개월 연속 하락은 1995년 관
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음식료품, 서
적·문구 등 비내구재(-1.1%)와 가전제
품, 통신키기·컴퓨터 등 내구재(-0.
8%) 판매가 줄어들었다. <4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 부산항 신항을 방문해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항만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뉴스1

“무역금융 350조 풀어 3대 리스크 집중 대응”

(對中수출-고유가-반도체)

尹, 부산 신항서 비상경제회의 수출기업 안정적 유동성 공급 해외인증·현장 애로 해소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
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
에 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
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
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시에 위
치한 부산신항 항만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
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인준)과 관
련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최일선 현장인
부산항, 그것도 부산신항에서 수출 경
쟁력 강화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
안을 논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며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
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세
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그래서 물류 시설과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
고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
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며 “2010년 710
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되
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
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해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
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
중(對中)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기업의 어
려움을 살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외건설 분야
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
엔데믹 등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
다”며 “우선 해외건설의 제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
를 매개로 해 교통망, 5G 등을 패키지
화해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
장 개척에 도전적으로 나서고, 부가가
치가 높은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 인프라 지원 공
사의 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
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5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원·달러 환율 장중 1352원 연고점 경신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52원을 돌
파하면서 연고점을 갈아치웠지만 장중
급락(원화가치 급등)하면서 1330원대
로 내려왔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
율은 전일 대비 9.1원 내린 1337.6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352
원까지 치솟으며 2거래일 만에 연고점
을 갈아치웠다. 2009년 4월 29일(장중
1357.5원) 이후 13년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고점으로 1352
원대를 기록했으며, 저점은 1337원대

에서 형성됐다.

시장에서는 연고점을 갈아치운 배경
으로 월말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
적 상승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정부의 환
율 관련 언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여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
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
해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도 검
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 판정, 수용 어렵다”

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 대응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
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국제소송에
서 일부 패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31일 한국정부에 2900억원 지급 판정
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
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

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
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이날 ICSID 판정부는 한국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에 달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96억
원·환율 133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
정했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제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

하라고 명했다. 이자액은 약 180억원대
로, 한국 정부가 내야 하는 금액은 약
3000억대 초반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
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016
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
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
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
해 46억7950만 달러(6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
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장제원 의원 “윤석열 정부서 공직 말
지 않겠다” 선언 /사진 뉴스1
- ▲ 서울시, 상암동에 지하 쓰레기 소각장
확정... 마포구 반발

- ▲ 정의당, 비례 총사퇴 당원 투표 시작...
다음달 4일 결정
- ▲ 박진 외교부 장관, 유엔 보고관에北
인권 우려



- ▲ 한미 연합군, 사단급 화력운용훈련...
최초·최대
-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정기국회 ‘골
든타임’ 강조 /사진 뉴스1